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음 2월 16일) 제15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4.13 총선 D-20

도내 총선 '더민주 vs 국민의당'

## '정책전' 보다 '네거티브전' 우려

이번 4·13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본 선전이 선거구 재획정과 공천 잡음, 野 대 野 구도 등의 여파로 '소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전략'이 우려된다.

지역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인구수 기준 등의 '짜깁기식' 선거구 획정과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감에 따라 당당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몇몇 여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野 대 野의 공방에 의한 효과로 유력한 당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소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지역은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이하 완·진·무·장) 등 4개 지역

부안 김춘진 vs 김제 김종회

완주 임정엽 vs 진무장 안호영 등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주의 심화

정의당·무소속 반사이익 예상도

이다.

이중 특히 김제·부안과 완·진·무·장 지역은 유력 후보자들의 출신지가 달라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여진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당초 김제·완주와 고창·부안의 선거구로 분리된 지역이 이번에 재획정 됐다.

이 지역은 부안출신이면서 현재 고창·부안 선거구의 현역의원인 더민주당의 김춘진 예비

후보가 4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제 출신으로 김제소재 학성강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제 토박이 국민의당 김종회 예비후보가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전북 전체면적의 34%나 차지하는 공룡선거구 완·진·무·장 지역도 이번 짜깁기식 선거구 획정으로 완주와 진·무·장이 새롭게 합쳐진 선거구이다.

현재 박민수 의원(더민주당), 진·무·장·임실(파)의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한 진안출신의 더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와 8년간 완주군수를 지낸 완주출신 국민의당 임정엽 예비후보가 맞붙었다.

이 지역 역시 2강 구도의 이당 후보들의 출신지가 달라 그에 따른 '소지역주의' 전략이 우려된다.

'소지역주의'의 심화와 함께 野 대 野 구도 속에서 오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한 선거

과열·혼탁도 야기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야 대 여 혹은 무소속의 선거구로 공격목표가 주로 야당에 집중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오는 4·13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는 '더민주당 대 국민의당'의 야당 양강구도로 짜여진 곳이 많다.

따라서 이당 후보간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이당 후보들이 본선 진출까지의 공천 잡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야당 후보들은 '석연찮은 컷오프', '불공정 경선', '불법 여론조사' 등의 구설수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들에게 공격을 받은 바, 이를 이용해 상대 야당의 지지세를 누른다는 것.

실제 일부 전략공천과 경선 과정에 불만은 몇몇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무효 및 반

발 기자회견 등을 갖은 바 있다.

이러한 野 대 野 구도 속에서 오는 '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전략의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던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랜시간 전주지역에서 기반을 둬온 정운천 예비후보(새누리당), 전주와 더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보람을 출마를 선언한 강동원 예비후보(무소속, 남순입)는 해당 지역 유력한 후보자로 불망에 오르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지역주의'와 '네거티브'로 흘러간다면 상대적으로 '정책전'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도민들은 이런 선거분위기에 훨씬 편리하고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과 공약, 실천을 행하고 각 선거구의 주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빌대식'이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숙주 순창군수, 유관 기관장, 민간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일품공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방축미을에서 농촌 클린활동 일환으로 텃밭에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우리 함께 가꿔가요'

순창서 농촌운동 빌대식 열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의 선두 주자인 순창에서 농식품부 행사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빌대식'이 23일 순창읍 일품공원에서 열렸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마을 주변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활동이다.

이번 빌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홍윤식 장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황숙주 순창군수, 민간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빌대식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427개 마을에서 추진해온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행자부와 협업하여 마을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빌대식을 계획이다.

행자부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사마마을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

### "개성공단 폐쇄 결정 피해액은 수조원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 참석,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여명의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직접 손실은 GNP 대비 0.04%로 크지 않지만 북한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 위축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북제재 및 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과 손실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정부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 개성공단 중단의 부작용 최소화 ▲ 북한의 도발 강화에 대비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꼽았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 김종인 "더민주 남겠다... 당 정상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23일 '이 당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께 당 중앙위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란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비례대표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당을 끌고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진다는 각오이며 "그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큰 욕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일

부 세력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며 "제 나름대로 초기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당의 기본적 방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나는 국민이 선택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수권정당 만들고 해서 더민주에 왔다"며 "미래의 정권을 지향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체성에 당이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회  
전국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 공동주관 : 전주매일신문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 후 원 : 전주시, 동아보건대학교  
 | 대회문의 : 063) 288-9700